

힐 前 차관보 “트럼프, 강력한 대북정책 펼 것”

통일부 주최 한반도 국제포럼 참석

“한미 방위비 분담 바꿀 필요 없어”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매우 강력한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통일부 주최 한반도 국제포럼 세미나 참석에 앞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적 요소를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트럼프의 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대화를 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대선 기간 중국과 관련한 그의 발언 가운데 상당수는 굉장히 도발적이었으며, 그런 발언들이 대중(對中) 정책에 반영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영리하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기 위해 언제나 그들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힐 전 차관보는 주한미군 방위금분담(주둔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정부 사이에 오랜 기간 방위비 분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절차가 진행돼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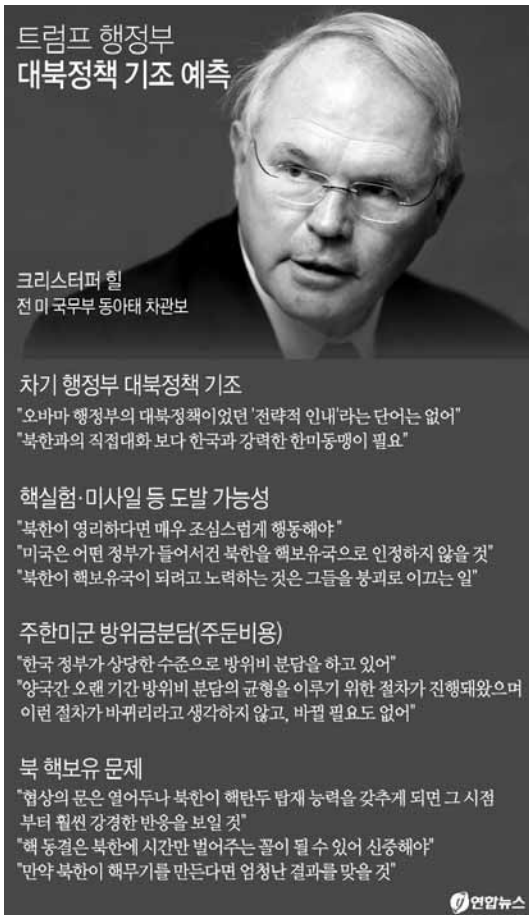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런 절차가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자 “핵무기가 확산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득이 되질 않는다”며 “트럼프는 선거 기간 단 한 번 관련 언급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을 붕괴로 이끄는 일”이라며 그간의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트럼프 새 행정부 사이의 협력 방안에 대해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와 접촉을 시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트럼프는 백악관 신임 비서실장을 임명했고, 외교·안보 관련 인사로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정보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등 차기 행정부 인사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도 “트럼프 정권이 강력한 한미동맹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63전한(前漢)을 세운 유연

유연(劉淵, ? ~ 310)의 자는 원해이며 흉노 선우의 후손으로 산서성 태원 지역을 다스린 족장의 아들이다. 위진 남북조 시대 5호 16국의 하나인 전한을 세웠다.

흉노(匈奴)의 대수장은 선우로 좌현왕, 우현왕, 골도후 등이 보좌하는 시스템이다. 흉노는 여러 부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한무제의 흉노 정벌로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후한 시대를 거쳐 북방 국경에 주기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었다. 후한 말 실권을 잡은 조조는 새로운 흉노정책을 수립했다. 여러 부족을 5부로 통합하였다. 부의 수장은 도위로 불리었고 부마다 사마라는 관직에 한족을 임명해 감독토록 하였다. 유연의 아버지 유표는 산서성 태원을 근거지로 한 좌

관군장군에 임명하고 흉노군을 징발하는 업무를 맡겼다. 이로 인해 조정의 정쟁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유연의 증조부 유선은 “한이 망한 이래로 우리 선우는 다만 빈 호칭만 있고, 더 이상 한 자락의 땅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사마씨는 부모 형제간에 골육상잔에 빠졌고 천하가 물 끓듯이 소란하다. 지금이 왕업을 회복할 적기다”라고 말하고 서로 모의해 유연을 대선우로 옹립했다. 그는 사마염에게 태원으로 돌아가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런 와중에 안북장군 왕준, 병주자사 사마들이 군대를 일으키자 사마염에게 “청컨대 천하를 위해 돌아가 흉노군을 설득해 국난에 달려오게 할 것이다”라고 주청해 북선우 참승상군사에 임명되었다. 흉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득이 주효했다.

흉노 선우의 후손...5호 16국 시대 열어

부의 도위에 임명되었다. 흉노는 한나라 때 형제의 인연을 맺어 흉노인이 한족의 성을 쓸 때는 대개 유씨(劉氏)를 썼다고 한다.

그는 중국 문화에 조예가 깊었다. 대학자 최유에게 사사해 시경, 주역, 상서를 배웠다. 손오의 병법에도 익숙했고 춘추좌씨전을 좋아했다. 사기, 한서 등 역사서를 즐겨 읽었다. “한가지 사물에 대해 모르는 것을 군자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에 씌어진 진서에는 그의 용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체격이 크게 당당했으며, 신장이 8척 4촌, 손엄의 길이 3척여이며, 가슴에 털이 세 개가 나 있었는데 그 길이가 3척 6촌이다.”

흉노는 한나라때 대거 중원지역으로 내려와 한족과 잡거하고 있었다. 숫자가 많아진 흉노가 나라의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 않았다. 서진 혜제 시절 강통은 유명한 사용론(徙戎論)을 상주했다. 흉노를 옛땅으로 돌려보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장이었다. “용적의 마음은 중국인과 다르다. 그들이 어려울 때 수도 지역으로 옮겨온 후 모두가 그들을 부리고 희롱하였으니 그 원한이 풀어서 사주쳐왔다”고 주장했다. 서진말 8왕의 난으로 전국이 소란스런 가운데 성도왕 사마염이 304년 황태제가 되었다. 업 지방을 다스린 사마염은 태원 주변에 거주한 흉노의 우현왕 유연을

304년 본거지인 산서로 돌아왔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20일동안 이미 5만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신하들에게 “옛날 한이 오랫동안 천하를 차지한 것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의 후손이고, 형제임을 이미 서약했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잇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산서의 좌국성을 수도로 삼아 환왕이라 칭하고 연호를 원희로 고쳐 전한을 건국했다. 5호 16국 중 최초의 국가다. 병주자사 사마등을 격파해 하동지역을 장악했다. 한족과의 싸움에 나서면서 “진이 무도하여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다”며 흉노의 민족 정서를 자극했다. 308년 산서성 포자에서 황제에 등극했고 아들 유충을 대장군으로 삼았다. 309년 평양으로 천도했고 다음해인 310년 7월 병사했다. 그의 시호는 광문이고 묘호는 고조다.

그의 대업을 아들 유충이 뒤를 이었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가 날쌔고 용맹스러웠다. 경서와 사서를 두루 읽었고, 글을 잘 지었다. 3백근이 되는 활을 쏘았으며 20세에 이르러 경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귀족, 명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그와 유요의 수 차례에 걸친 낙양과 장안 공략으로 316년 서진은 52년만에 멸망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첫 부인 이바나

“내가 체코 대사 적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부인인 체코 태생 이바나 트럼프(67·사진)가 주체코 미국 대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바나는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내가 체코 대사가 돼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며 “체코에서는 모두가 나를 알고 나는 전 세계에서든 꽤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쓴 책 3권이 40개국에서 25개 언어로 번역됐다”며 “나는 트럼프 이름이 굳이 없어도 이바나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고 자신의 자질을 강조했다.

또 이바나는 “솔직히 트럼프 타위가 백악관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에도 주거지로서 뉴욕 트럼프 타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출장을 싫어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체코 출신 기업인이자 전직 모델인 이바나는 1977년 트럼프와 결혼하고서 1992년 이혼했다. 그는 대선 기간 트럼프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장남 트럼프 주니어(38), 딸 이방가(35), 아들 에릭(32)의 모친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싫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시카고 등 전국 37개 도시에서 13일(현지시간) 나흘째 이어지면서 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까지 번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 맨하탄에서 한 어린이가 트럼프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트럼프에 축하 전화...G2 협력 강화키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중국 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현재 중미 협력은 중요한

기회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며 “양국 협력도 강화로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성장 추진, 분야별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양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양국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시 주석의 ‘당선 축하’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미·중 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견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CTV는 전했다.

그는 “발전하는 중국의 밝은 미래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미·중 양국이 ‘호혜공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관계가 반드시 더 좋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밀집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정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풍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정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정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3,305㎡ 건물 1,054㎡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정가 35억2천7백 ▶ 최저가 7억9천2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상가 28억전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 ★ 광천동 재개발지역내 원룸 매매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임대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역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